

警世歌



[해제]

작자는 김주희로 알려져 있으며, 창작시기가 정확치 않는 동학가사작품이다. 이 작품은 『용담유사(龍潭遺辭)』 권18에 실려 있으며, 『용담유사』는 경상북도 상주(尙州)에서 1924년에 동학교당을 설립했던 김주희(金周熙, 1866-1944)가 국한문 혼용본과 순한글본으로 하여 2종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에는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용담유사(龍潭遺辭)』에 실린 작품 중 <검결(劍訣)>을 제외하고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教訓歌)>,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도수사(道修詞)>, <권학가(勸學歌)>,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歌)> 등 8편을 포함하여 모두 108편의 가사 작품이 실려 있다. 여기서 작자 김주희는 동학교를 창시한 인물로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孫秉熙, 1861-1922)가 천도교를 창시하여 순수교단을 표방하고 이념에서 벗어나자 이와 반하여 당시 총복 보은에 피신해 있던 김주희가 1915년에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민족종교를 창시한 것이다. 처음에는 경천교(敬天教)라 하였으나 후일 동학교(東學教)로 개칭하였다. <경세가>는 국한문 혼용으로 된 필사본이다. 작품이 들어있는 책 맨앞에는 ‘龍潭遺辭之第十八相和代明歌卷一’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相和代明歌>라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팔괘변역가(八卦變易歌)>, <근농가(勤農家)>, <경세가(警世歌)>, <원시가(原時歌)>, <몽중가(夢中歌)> 등 5편의 작품을 합쳐서 부른 이름이다. 모두 112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음보 가락을 잘 유지하고 있다. 구한말 지배계층에 대한 불신과 함께 문명개화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문명법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자각하고 있다. 또한 총효와 삼강오륜을 익혀 도덕적으로 무장하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천하를 개벽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다시開闢 定法하니 萬法歸一 다시되야
 是化是豊 도라온다 矢口矢口 鳥乙矢口
 勤耕하든 더農夫를 擊壤歌를 불으면서
 含哺鼓腹 질거한이 太古淳風 조흔씨라
 안이놀고 무엇하리 놀고놀고 놀라보세

警世歌

人間萬事 덕근손이 漢陽城中 도라들러
 時局形便 살허본이 可笑可歎 안일너가
 東西洋 더列國이 協相文明開化 한다던니
 開明은 姑舍하고 兵器進步 惺然故며
 抑强扶弱 相求之道 以德報人 한다더니
 義理난 姑舍하고 氣勢主張 그뿐일세
 禮樂法律 列學中에 人之村質 가려니여
 文明政治 하즈하나 揣其末 이世上의
 物慾之腸 가룬마음 冒沒廉恥 그뿐일세
 世情變態 더러하니 陷地死地 더百姓을
 그뉘라서 건져닐소 以食爲天 알건만은
 絶力飢寒 원일인지 國之根本 百姓인디

本固邦寧 몰나스니 그안이 可歎인가
先王制度 업서씨니 忠臣烈士 그닐넌고
國家保護 姑舍하고 一身保護 전허몰나
皇皇汲汲 이世上에 氣勢升降 偏黨되야
蕭牆之禍 날노나니 外國壓制 더욱만타
聖哲하신 우리皇上 布德布化 하엿씨나
그뉘라서 奉命할고
政府公事 一日三變 밋들百姓 전허읍닉
一亂一治 盛衰之理 自古聖賢 일너스니
亞務理 이世上도 天必有意 하시리라
天降嘉種 조흔種子 人間生靈 살이야고
萬百姓에 傳播하여 山田水田 심을적에
折草糞土 만이하어 深耕易耨 除草하니
病于夏畦 더農夫는 晝夜不徹 勤力하나
修其人事 할분이요
勃然興苗 自然實은 以待天時 收藏이나
揠苗助長 저사람은 웃지절리 心急하고
지르기난 姑舍하고 死하기가 荒唐하다
그안이 可歎인가
天皇水 흐른물이 四海에 分派할제
觀水有術 살허본이 水之本性 淨潔한디
何處清清 何處濁을 潛心默會 生覺하니
動則濁 靜則清을 이제야 矚단노라
濁斯濯足 清濯纓은 自取之化 안일넌가
금쥬에 늘근나구 勇躍壯躍 자랑타가
범에禍를 當히쓰니 그才調도 不可하고
西海에 잠긴고기 黑水吐히 避身타가
漁翁荷釣 만나쓰니 그避身도 쓸디업네
돌틈에 업친고기 春氣타면 回生하이
白晝에 노는鰓鳧 그야니 悶望한가
大江水 집흔根源 大旱인들 마를쇼며
古木에 구든뿌리 隆寒인들 죽을손야
天生萬民 그가운디 惟人이 最靈貴는
仁義禮智 孝悌忠信 三綱五倫 法度具備
하느니라
正心正氣 極히하야 獲罪于天 부디말고
天威神目 발은곳에 極誠極力 하여두면
萬事如意 順成되야 莫之而爲天에 自然天이

안일년가

修文修法 勤孜하여 一定之心 變치말고
朋友責善 서루勸히 착한行實 本를바다
남에耳目 살피두고 忠孝二字 발허니여
我國同胞 歸一되면 當當正理 卓異之行
五倫三綱 웃슴이요 禮樂教化 聖常之德
以化萬邦 할터이니 文明法度 和氣中の
列國之人 欽慕되면 天下開明 하여보세

源時歌

路遊閒談無事客이旅牕의몸을비겨輾
轉反側하다가셔노리한章지어니여天
理故鄉傳히준니賢淑한諸君子들埋沒

[현대역]

다시개벽(開闢) 정법(定法)69하니 만법귀일(萬法歸一) 다시되어
 시화시풍(是化是豐)70 돌아온다 시구시구(矢口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
 근경(勤耕)하던 저농부(農夫)들 격양가(擊壤歌)71를 부르면서
 함포고복(含哺鼓腹)72 즐거하니 태고순풍(太古淳風)73 좋은때라
 아니놀고 무엇하리 놀고놀고 놀아보세

경세가(警世歌)

인간만사(人間萬事)1 겪은손이2 한양성중(漢陽城中) 돌아들어
 시국형편(時局形便)3 살펴보니 가소가탄(可笑可歎)4 아닐런가
 동서양(東西洋) 저열국(列國)5이 협상문명개화(協商文明開化)6 한다더니
 개명(開明)7은 고사(姑捨)8하고 병기진보(兵器進步)9 웬연고(然故)10며
 억강부약(抑強扶弱)11 상구지도(相求之道)12 이덕보인(以德報人)13 한다더니
 의리(義理)14는 고사(姑捨)하고 기세주장(氣勢主張) 그뿐일세
 예악법률(禮樂法律)15 열학중(列學中)16에 인지재질(人之村質)17 가려내어
 문명정치(文明政治) 하자하나 취기말(揣其末)18 이세상의
 물욕지장(物慾之腸)19 기른마음 모멸염치(冒沒廉恥)20 그뿐일세
 세정변태(世情變態)21 저러하니 함지사지(陷地死地)22 저백성(百姓)을
 그누라서 건져낼꼬 이식위천(以食爲天)23 알건만은
 절력기한(絶力飢寒)24 웬일인지 국지근본(國之根本)25 백성(百姓)인데
 본고방령(本固邦寧)26 몰랐으니 그아니 가탄(可歎)인가
 선왕제도(先王制度)27 없었으니 충신열사(忠臣烈士)28 그닐런고
 국가보호(國家保護) 고사(姑捨)하고 일신보호(一身保護) 전혀몰라
 황황급급(皇皇汲汲)29 이세상(世上)에 기세승강(氣勢升降)30 편당(偏黨)31어
 소장지화(蕭牆之禍)32 날로나니 외국압제(外國壓制)33 더욱많다
 성철(聖哲)34하신 우리황상(皇上)35 포덕포화(布德布化)36 하였으나
 그누라서 봉명(奉命)37할꼬
 정부공사(政府公事)38 일일삼변(一日三變)39 믿을백성(百姓) 전혀없네
 일란일치(一亂一治)40 성쇠지리(盛衰之理)41 자고성현(自古聖賢)42 일렀으니
 아무리(亞務理) 이세상(世上)도 천필유의(天必有意)43 하시리라
 천강가종(天降嘉種)44 좋은종자(種子) 인간생령(人間生靈)45 살릴려고
 만백성(萬百姓)에 전파(傳播)46하여 산전수전(山田水田)47 심을적에
 절초48분토49(折草糞土) 많이하여 심경이뉴(深耕易耨)50 제초(除草)51하니
 병우하휴(病于夏畦)52 저농부(農夫)는 주야불철(晝夜不撤)53 근력(勤力)하나
 수기인사(修其人事)54 할뿐이요
 발연흥묘(勃然興苗)55 자연실(自然實)56은 이대천시(以待天時)57 수장(收藏)이나
 알묘조장(握苗助長)58 저사람은 어찌저리 심급(心急)59하고
 기르기는 고사(姑捨)하고 사(死)하기가 황당(荒唐)60하다

그아니 가탄(可歎)인가
천황수(天皇水) 흐른물이 사해(四海)에 분파(分派)61 할제
관수유술(觀水有術)62 살펴보니 수지본성(水之本性)63 정결(淨潔)64한데
하처청청(何處淸淸) 하처탁(何處濁)65을 잠심묵회(潛心默會)66 생각(生覺)하니
동즉탁(動則濁) 정즉청(靜則淸)67을 이제야 깨닫노라
탁사탁족(濁斯濯足) 청탁영(淸濯纓)은 자취지화(自取之化)68 아닐런가
금주에 늪은나귀 용작장작(勇躍壯躍)69 자랑타가
범의화(禍)를 당(當)했으니70 그재주(才調)도 불가(不可)하고
사해(西海)에 잠긴고기 흑수토(黑水吐)에 피신(避身)71타가
어옹72하조73(漁翁荷釣) 만났으니 그피신(避身)도 쓸데없네
돌틈에 엮친74고기 춘기(春氣)타면 회생(回生)하이
백주(白晝)75에 노는망량(魍魎)76 그아니 민망(悶望)77한가
대강수(大江水) 깊은근원(根源) 대한(大旱)78인들 마를소며
고목(古木)에 굶은뿌리 융한(隆寒)79인들 죽을소나
천생만민(天生萬民)80 그가운데 유인(惟人)이81 최영귀(最靈貴)는82
인의예지(仁義禮智)83 효제충신(孝悌忠信)84 삼강오륜(三綱五倫)85 법도구비(法度具備)86
하는바라
정심정기(正心正氣)87 극(極)히하여 획조우천(獲罪于天)88 부디말고
천위신목(天威神目)89 밝은곳에 극성극력(極誠極力)90 하여두면
만사여의(萬事如意) 순성(順成)91되어 막지위위천(莫之而爲天)92에 자연천(自然天)이
아닐런가
수문수법(修文修法)93 근자(勤孜)94하여 일정지심(一定之心)95 변(變)치말고
붕우책선(朋友責善)96 서로권(勸)해 착한행실(行實) 본(本)을받아
남의이목(耳目) 살펴두고 충효이자(忠孝二字) 밝혀내어
아국동포(我國同胞) 귀일(歸一)되면 당당정리(當當正理)97 탁이지행(卓異之行)98
오륜삼강(五倫三綱) 으뜸이요 예악교화(禮樂教化) 성상지덕(聖上之德)
이화만방(以化萬邦)99 할터이니 문명법도(文明法度) 화기중(和氣中)의100
열국지인(列國之人)101 흠모(欽慕)102되면 천하개명(天下開明) 하여보세

源時歌

노유한담(路遊閒談)1 무사객(無事客)이 여창(旅牕)의 몸을 비껴
전전반측(輾轉反側)2 하다가서 노래 한 장(章) 지어내어
천리고향(天理故鄉) 전(傳)해 주니 현숙(賢淑)한 제군자(諸君子)들

[각주]

- 1) 인간만사(人間萬事) : 인간 세상의 온갖 모든 일.
- 2) 꺾은손이 : 꺾은 손님이.
- 3) 시국형편(時局形便) :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 4) 가소가탄(可笑可歎) : 터무니없이 우습거나 탄식함.
- 5) 열국(列國) : 여러 나라.
- 6) 협상문명개화(協商文明開化) : 문명을 개화시키는데 여럿이 서로 의논함.
- 7) 개명(開明) : 지혜가 계발되고 문화가 발달함.
- 8) 고사(姑捨) :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원본에는 고사(姑舍)로 표기되었으나 오기임.
- 9) 병기진보(兵器進步) : 전쟁에 쓰는 기구만 더 늘어남.
- 10) 연고(然故) : 연고(緣故)의 잘못된 표기. 까닭.
- 11) 억강부약(抑強扶弱) :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 12) 상구지도(相求之道) : 서로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도리.
- 13) 이덕보인(以德報人) : 덕으로써 사람에게 보답한다는 뜻.
- 14) 의리(義理) :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15) 예악법률(禮樂法律) : 예법과 음악 그리고 법률.
- 16) 열학(列學) : 여러 학문.
- 17) 인지재질(人之材質) : 사람됨의 자질.
- 18) 채기말(揣其末) : 그 끝을 헤아려봄.
- 19) 물욕지장(物慾之腸) : 재물을 탐내는 마음.
- 20) 모몰염치(冒沒廉恥) :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함.
- 21) 세정변태(世情變態) : 세상의 사정이나 형편이 달라짐.
- 22) 함지사지(陷地死地) : 함정에 빠뜨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땅.
- 69) 정법(定法) : 정해진 법칙.
- 70) 시화시풍(是化是豐) : 시화연풍(時和年豐)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이며,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든 상황을 말함. 시화세풍(時和歲豐)이라고도 함.
- 71)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중국의 요임금 때에, 태평한 생활을 즐거워하여 불렀다고 함.
- 72) 함포고복(含哺鼓腹) :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
- 73) 태고순풍(太古淳風) : 태고시절의 순박한 풍속.
- 23) 이식위천(以食爲天) : 사람이 살아가는 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르는 말.
- 24) 기한(飢寒) : 배고픔과 추위.
- 25) 국지근본(國之根本) : 나라의 근본.
- 26) 본고방영(本固邦寧) :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함.
- 27) 선왕제도(先王制度) : 선대왕이 이루어놓은 제도.
- 28) 충신열사(忠臣烈士) : 충성을 다하는 신하와 절개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9) 황황급급(皇皇汲汲) : 몹시 급하며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말.
- 30) 승강(升降) : 오르고 내림.
- 31) 편당(偏黨) : 한 당파에 치우침.
- 32) 소장지화(蕭牆之禍) : 재앙은 궁궐이나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 33) 외국압제(外國壓制) : 외국의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강제로 누름.
- 34) 성철(聖哲) : 매우 현명하고 만사에 통달한 사람.
- 35) 황상(皇上) : 현재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皇帝)를 이르는 말.
- 36) 포덕포화(布德布化) : 천도교에서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편다는 뜻으로 천도교의 전도(傳道)를 이르는 말.
- 37) 봉명(奉命) : 임금이나 윗사람의 명령을 받들어 모심.
- 38) 정부공사(政府公事) : 나라의 공무(公務).
- 39) 일일삼변(一日三變) : 하루에 세 번이나 변할 만큼 아주 복잡한 상황.
- 40) 일란일치(一亂一治) : 난리가 난 후에는 태평한 시절이 온다는 뜻으로 '일치일란(一治一亂)'이 맞는 표현.
- 41) 성쇠지리(盛衰之理) : 성하고 쇠하는 이치.
- 42) 자고성현(自古聖賢) : 예부터 성현들이.
- 43) 천필유의(天必有意) : 하늘에 반드시 뜻이 있음. 곧 하늘의 이치.
- 44) 천강가종(天降嘉種) : 하늘에서 좋은 곡식을 내려줌.
- 45) 생령(生靈) : 생명(生命).
- 46) 전파(傳播) : 전하여 널리 퍼뜨림.
- 47) 산전수전(山田水田) : 산에 있는 밭과 물이 늘 곁에 있는 논.
- 48) 절초(折草) : 거름이나 땀나무로 쓰기 위하여 풀이나 잎나무 따위를 땀.
- 49) 분토(糞土) : 썩은 흙.
- 50) 심경이뉴(深耕易耨) : 땅을 깊이 갈고 김매기를 잘함. '맹자(孟子)'에 나옴.
- 51) 제초(除草) : 잡초를 뽑아 없앴.
- 52) 병우하휴(病于夏畦) : '맹자(孟子)'에 나오는 구절로 '어깨를 올리고 아침하며 웃는 것은 여름에 밭 일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다. 耨肩諠笑, 病于夏畦'에서 나온 것임.
- 53) 주야불철(晝夜不撤) :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 54) 수기인사(修其人事) : 사람이라면 마땅히 닦아야 할 일.
- 55) 발연흥묘(勃然興苗) : 싹이 급격하게 잘 자라남을 뜻함.
- 56) 자연실(自然實)은 : 자연스레 열매를 맺는 것은.
- 57) 이대천시(以待天時) : 하늘의 때를 기다림.
- 58) 알묘조장(揠苗助長) : '맹자(孟子)'에 나오는 구절로 곡식을 싹을 잡아당겨 빨리 자라도록 돕는다는 뜻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비유하는 말.
- 59) 심급(心急) : 마음이 급함.
- 60) 황당(荒唐) :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음.
- 61) 분파(分派) :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갈라짐.
- 62) 관수유술(觀水有術) : '맹자(孟子)'에 나오는 구절로 '물을 관찰할 때는 반드시 그 물결을 바라보아

야 한다. 觀水有術 必觀其瀾'에서 유래한 것임.

63) 수지본성(水之本性) : 물의 본디 성품.

64) 정결(淨潔) :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

65) 하처청청(何處淸淸) 하처탁(何處濁) : 어느 곳이 깨끗하며 어느 곳이 더러운가.

66) 잠심묵회(潛心默會) : 어떤 일에 마음을 두어 깊이 생각하거나 말없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달음.

67) 동즉탁(動則濁) 정즉청(靜則淸) : 움직이면 탁해지고 고요하면 맑아짐.

68) 탁사탁족(濁斯濯足) 청탁영(淸濯纓)은 자취지화(自取之化) : 이는 원래 굴원(屈原)의 <초사(楚辭)>에서 나온 말로,

69) 용작장작(勇躍壯躍) : 날세게 뛰고, 씩씩하게 뛸.

70) 범의화(禍)를 당(當)했으니 :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으니.

71) 피신(避身) : 몸을 숨김.

72) 어옹(漁翁) : 고기를 잡는 노인.

73) 하조(荷釣) : 연꽃을 따는 행위.

74) 업친 : 숨은.

75) 백주(白晝) : 대낮.

76) 망량(魍魎) : 도깨비.

77) 민망(悶望) : 민망(憫惘)이 바른 표기로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까움.

78) 대한(大旱) : 큰 가뭄.

79) 융한(隆寒) : 엄한(嚴寒)이라고도 하며 매우 심한 추위.

1) 노유한담(路遊閒談) : 길에서 노닐며 한가롭게 대화를 나눔.

2) 전전반측(輾轉反側)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80) 천생만민(天生萬民) : 하늘이 낸 만백성.

81) 유인(惟人)이 : 오직 사람만이.

82) 최영귀(最靈貴)는 : 가장 귀한 것은.

83) 인의예지(仁義禮智) :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 곧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말함.

84) 효제충신(孝悌忠信) : 어버이에 대한 효도, 형제끼리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 사이의 믿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

85) 삼강오륜(三綱五倫) :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

86) 법도구비(法度具備) :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制度)를 아울러 갖추.

87) 정심정기(正心正氣) : 바른 마음과 바른 기운.

88) 획조우천(獲罪于天) : 하늘에 죄를 받음.

89) 천위신목(天威神目) : 하늘의 위엄과 신의 눈.

90) 극성극력(極誠極力) : 지극하게 성실히 하고 지극하게 힘씀.

91) 만사여의(萬事如意) 순성(順成) : 모든 일이 뜻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짐.

92) 막지위위천(莫之而爲天) : 하늘로 삼지 못할 것이 없음.

93) 수문수법(修文修法) : 문장을 기르고 법을 지킴.

- 94) 근자(勤孜) : 부지런히 힘씀.
95) 일정지심(一定之心) : 일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96) 봉우책선(朋友責善) : 친구는 서로 착한 일을 권한다는 뜻으로, 참다운 친구라면 서로 나쁜 짓을 못하도록 권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야 함.
97) 당당정리(當當正理) : 마땅히 바른 이치.
98) 탁이지행(卓異之行) : 남보다 뛰어난 행동.
99) 이화만방(以化萬邦) : 이화만방(理化萬邦)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이며, 세계 각국을 다스려 깨우침.
100) 화기중(和氣中)에 : 화한 기운 가운데.
101) 열국지인(列國之人) : 여러 나라의 사람들.
102) 흠모(欽慕) :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모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